

소비자 우롱한 이통 3사 기지국 수 ‘뺑튀기’

이동통신 무선국 현황

	광대역·LTE-A	광대역 LTE
SKT	17만3219개	6만3885개
KT	12만6096개	10만7097개
LGU+	14만6524개	3만7619개



광대역 LTE-A 1위 SKT

21만개 아닌 17만여개

광대역 LTE 1위는 KT

대부분 광고 내용보다 적어

이동통신 3사의 무선기지국 규모가 정부 자료로 처음 공식 확인됐다.

주파수 대역별로 광대역 LTE-A(통합에블루션 어드밴스드)에선 SK텔레콤이, 광대역 LTE에서는 KT의 기지국이 각각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광대역 LTE 기지국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광대역 LTE-A 기지국 수는 KT보다 많았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최근 광대역 LTE-A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기지국 숫자를 제시하며 서로 자사 서비스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홍보했는데 제시 근거가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됐다.

◇SKT 광대역 LTE-A 기지국 17만개…광고보다 적어=미래창조과학부와 중앙전파관리소가 공개한 ‘이동통신 대역별 무선국 현황’(7월1일 기준)을 보면 광대역 LTE-A의 경우 SK텔레콤이 17만3219개로 KT, LG유플러스를 제치고 기지국 규모면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SK텔레콤이 광고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9일 이통 3사 중 가장 먼저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출시한 뒤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 기지국수가 21만개라면서 “이통 3사 중 가장 많은 기지국을 구축, 가장 넓은 커버리지(서비스지역)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에 확인된 숫자는 이런 광고보다 3만7000여개 적었다.

SK텔레콤측은 “기지국 신고 기준은 국소 단위여서 한개의 국소 안에 여러개 기지국이 있어도 하나만 신고한다. 이때문에 실내용 지하에 설치한 소출력 기지국 같은 경우가 통계에서 빠진 것”이라며 “전체 숫자는 21만개가 맞다”고 설명했다.

◇KT, 광대역 LTE는 1위·광대역 LTE-A는 3위=광대역 LTE의 경우 KT가 10만7097개로 이통3사가운데 가장 많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6만3885개, 3만7619개를 기록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선보인 광대역 LTE-A를 기준으로 하면 KT는 이통3사 가운데 꼴찌다.

특히 KT의 기지국(12만6096개)은 LG유플러스(14만6524개)보다도 숫자가 적다.

문제는 KT가 “국내 최대 10만 광대역 기지국, 빈틈없이 촘촘한 KT 광대역 LTE-A”라고 홍보했다는 점이다. 이는 광대역 LTE 기지국이 광대역 LTE보다 속도가 3배 빠른 광대역 LTE-A를 지원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LG유플러스, 광대역LTE 밀리고 LTE-A는 2등=LG유플러스의 경우 광대역 LTE 기지국에서는 타사에 크게 밀리는 상태로 확인됐다.

이 회사의 광대역 LTE 기지국 수는 3만7619개. SK텔레콤의 6만3885개나 KT의 10만7097개보다 적은 숫자다. 다만 광대역 LTE-A는 14만6524개로 KT보다는 많고 SK텔레콤보다는 적은 상태다.

이런 점에서 “초광대역 LTE-A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LG유플러스의 홍보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평가다. 이 회사는 “비디오 LTE 시대에도 1등 LTE 업체로 위상을 지키겠다”고 강조해왔다.

/연합뉴스



최신영화 스마트폰 배경으로 꾸미세요

LG전자가 개봉을 앞둔 최신영화를 스마트폰 배경으로 꾸밀 수 있도록 해주는 ‘홀테마’ 이벤트를 펼친다. LG스마트폰 사용자는 LG전자가 운영하는 앱스토어 LG스마트월드에서 ‘도둑의 길들이기2’, ‘영랑’, ‘닌자터틀’ 등 최신영화 이미지를 내려받아 배경화면, 잠금 화면, 아이콘 등을 꾸밀 수 있다.

/연합뉴스

금주의 추천 앱

더운 계절... 스마트폰으로 건강 챙겨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등과 이마에 땀이 줄줄 흐르는 더위의 계절이 찾아왔다. 자칫 무기력하기 쉬운 여름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3가지를 소개한다.



◆피부예보++ / 제작 아모레 퍼시픽. / 사용기반 : 안드로이드, 아이폰
여름철 상하기 쉬운 피부를 지키기 위해 날씨, 자외선, 습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평소 자신의 피부상태를 입력하면 피부를 관리 및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PACT / 제작 Pact Team / 사용기반 : 안드로이드, 아이폰
운동이 귀찮아지는 여름, 현금을 결부시켜 동기부여를 하는 이 앱은 운동에 좋은 기록제가 된다. 체육관 약속, 식사기록 약속, 채식 약속을 하고 GPS로 자신의 운동을 증명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놈다이어트 / 제작 Noom Inc. / 사용기반 : 안드로이드, 아이폰
노출의 계절인 여름, 체계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면 이 앱을 사용해보자. 사용자가 먹은 음식, 운동 내용, 몸무게 등을 분석해 맞춤형 다이어트를 제공한다. 사용자의 운동량을 측정, 기록해 관리도 쉽다.

이통사, 보이스톡 제한 “불법이다”

형사정책연구, 형사법적 관점 검토

“정당성 없는 방해는 사생활 침해”

이동통신사가 카카오톡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국회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공공연구기관이 망 중립성(Net Neutrality) 문제를 기업-기업, 기업-소비자의 이해관계 상충이 아닌 형사법적 관점으로 짚어냈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에서 진행될 망중립성 논의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망중립성과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형사정책’ 보고서에서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망중립성 견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망 중립성이란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

츠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에선 이통사들이 2012년 ㈜카카오가 출시한 보이스톡 서비스를 요금제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허용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확산됐다.

공동 저자로 참여한 전현욱 박사는 보고서에서 “통신사들은 자동화된 장비로 데이터 통신(보이스톡)을 식별, 분류하고 특정 패킷을 골라내 전송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용의 지득(知得)없이 송·수신을 방해하는 경우도 통비법상 감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 박사는 “통신사들이 자사의 콘텐츠를 우대하기 위해 경쟁 관계에 있는 통신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려고 DPI(패킷 분석해 차별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장비) 기술을 도입했다”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망 중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생긴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당연히 형사 불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통3사 ‘스마트인증’ 추진

유심·공인인증서 일체화…복제 차단

이동통신 3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식별모듈(유심·USIM) 기반 공인인증서서비스인 ‘스마트인증’을 공동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인증은 스마트폰에 장착된 유심칩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차세대 공인인증서비스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보안 1등급 매체로 인정한 유심을 활용해 공인인증서비스의 보안 수준을 높인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전자금융거래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하지만 하드디스크나 USB 등에 저장할 경우 악성코드를 통한 필요한 수단이나 악성코드 등을 통해 도용될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인증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스마트폰 유심과 공인인증서를 일체화해 외부 복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스마트인증은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스마트인증’을 검색해 내려받아 가입한 뒤 공인인증서를 유심에 저장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최강! 센 캐릭터 일곱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강적들

고품격과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쇼!
매주 수요일 밤 11시 방송